



제10회 원자로 열수력 국제학술회의 개최

과 학기술부는 한국원자력학회와 미국원자력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0회 원자로 열수력 국제학술회의(조직위원장 : 서울대 강창순(姜昌淳) 교수)가 10월 5일(일)부터 9일(목)까지 서울 쉐라톤 위커희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원자로 열수력 국제학술회의(NURETH-10, International Meeting on Nuclear Reactor Thermal Hydraulics)는 원자로 열수력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학술회에서 매 2-4년마다 개최되며, 전세계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기초 및 응용 분야를 포함한 원자력 열수력 분야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대회이다.

이번 NURETH-10 국제학술회의에는 약

450여명(국의 200명, 국내 250명)의 원자력 열수력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18편의 초청 논문과 세계 30여개국에서 제출한 300편의 학술 논문이 발표된다.

주요 연설내용으로는 미국 Bennett 박사의 "제4세대 원전의 진보와 도전", 일본 Akiyama 교수의 "일본의 원자력 연구개발 현황", 스위스 Yadigaroglu 교수의 "열수력 수치해석의 새로운 도전", 한국과학기술원 김종현 교수의 "한국 원자력 개발 50년사" 등이며, 미국 원자력학회 열수력분과에서 수여하는 Technical Award 수상자인 한국과학기술원 장순홍 교수의 "임계 열유속의 이해, 예측 및 증진"에 관한 특별강연도 있었다.

아세안 주요국가와 핵의학 협력사업 착수

최 근 아세안 국가와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지역 핵의학 연수과정이 우리나라에서 개설되는 등 아세안 국가와의 원자력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학기술부(박호균 장관)는 10.13(월)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원자력의학원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과 중국 등 동북아 국가의 핵의학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사이클로트론 및 핵의학 인턴십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아·태 지역원자력협정(RCA) 사무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핵의학 인턴십 과정은 원자력의학원 주관으로 실시되며, 아세안 주요국가를 포함한 10개국에서 17명의 핵의학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이 연수과정은 원자력의학원이 순수 국내기술

로 자체개발한 사이클로트론과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의 핵의학적 이용과 임상적용에 대한 기초기술 전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아세안 지역과의 원자력협력 활성화와 함께 우리가 개발한 사이클로트론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